

속초지역 통합 건의 활동 '불쾌' 반응

고성군의회·고성군변영회 반대 입장 밝혀... 일부 주민들 "먹고 살기 힘들다" 찬성

본지 23일 긴급좌담회

속초지역 사회단체들이 지난달 27일 '속초시 설악권 4개 시·군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달 8일부터 주민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던 고성지역 주민들이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고성군변영회는 최근 회장단 긴급 모임을 갖고 속초지역의 통합 건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속초시의 일방적인 통합 움직임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필요하다면 반대 플래카드 설치와 주민궐기대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기로 했다.

고성군의회도 의원간담회를 열어 통합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오는 25일 제218회 정례회 개최식 때 홍봉선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의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다. 의회는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변영회와 공조해 궐기대회 등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고성의 모습.

고성군의회 문명호 의장은 "고성군은 6.25로 인해 남·북고성이 분단된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지난 60여년간 오직 고성이 하나로 통일되기만을 염원해오고 있다"며 "금강산 일만이천봉이 고성군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설악권과 합쳐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영일 고성군 변영회장은 "고

성군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군으로 지역의 반 이상이 북쪽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과 통합을 한다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조상 대대로 이어온 고성군을 우리 대에 와서 사라지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많은 주민들은 속초지역의 통합 건의 움직임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

지만, 일각에서는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 속초지역의 이번 움직임은 고성군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이므로,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확실하게 제시해 다시는 이런 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주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며 "통합을 하면 지금보다 나은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만 된다면 통합에 찬성한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고성군주민협의회 사무실(간성터미널 맞은편)에서 '속초지역의 통합 건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공익신고 보호제도 설명회

국민권익위, 내년 2월까지 11개 권역별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지난 9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내년 2월까지 16개 시·도를 11개 권역으로 나눠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7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 강당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공익신고의 세부범위와 보호내용, 보상 절차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기업 등이 공익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조사항도 상세히 제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11개 권역별 전국 설명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이 철저히 보호 받고, 기업은 공익침해행위의 자체 예방과 관리를, 공공기관

은 신고자 보호 노력을 더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사항의 표준 취업규칙(안) 반영 추진 ▲공익신고 처리기관에 대한 교육 지원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기업 등의 대표자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으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알림

고성신문 긴급 좌담회 개최

속초지역의 통합 건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최근 속초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등 4개 시군의 통합을 건의하기 위한 주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본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고성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속초지역의 통합 건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긴급좌담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11월 23일, 오전 10시30분
- 장 소 : 고성군주민협의회 사무실(간성터미널 맞은편)
- 좌담회 참석자 : 이영일 고성군변영회장, 함명준 고성군의회 부의장, 이덕용 고성군 이장단 협의회장, 황화선 간성재래시장변영회 회장, 박정훈 고성청년회의소 회장, 이동균 고성21공동대표, 김용자 귀농인, 최광호 편집국장(사회).

주식회사 고성신문

경조사·모임·구인·구직·개업 생활정보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정보 접수방법

◆전화 : 681-1666~7 ◆팩스 : 681-1668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핸드폰 문자 010-2022-2633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자 신문에 게재해 드립니다.